

## 成人病과 四象體質醫學

宋 一 炳\*

### I. 緒 論

東武 李濟馬先生께서는 1894년(甲午 4月13日) 東醫壽世保元을 著術하시어 최초로 四象醫學說을 提唱하였다.

1894年(甲午年)은 淸日전쟁과 甲午更張으로 근 대적 官制가 導入되어 內務衙門에 衛生局을 두어 傳染病 豫防사업과 種痘사업을 시작하였고, 선교사 「에비슨」(뒤에 세브란스병원 설립자)이 王立病院인 濟衆院을 인수하여 宣敎會사업으로 西洋醫學 病院을 최초로 운영한 해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西洋醫學이 우리나라에 밀려오는 變換期的 환경속에서 東武公은 기존 韓의학의 이론을 모두 수용 정리하여 새로운 四象醫學理論을 完成하였는데 이는 醫學史의 立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東武는 “나 李濟馬는 醫學경험이 있는지 5.6千 年 後에 出生하여 前人의 著述을 바탕으로 우연히 四象人 臟腑性理를 얻어 東醫壽世保元을 저작하게 되었다.”고 하여 自身의 經驗보다는 前人의 모든 醫學經驗을 바탕으로하여 四象醫學이 나왔음을 말하고 있고, 또한 「醫源論」에서 “神農黃帝 이후 秦漢이전의 病證藥理를 張仲景이 전하여 醫

道가 始興하고, 魏晉이후 隋唐이전의 病證藥理를 朱肱이 전하여 醫道가 重興하고, 宋元이후 明이전의 病證藥理를 李梴 龔信 許浚이 전하여 醫道가 復興하였다.”고 하여 醫學이론의 발전적 醫學史觀을 말하였다. 이러한 立場에서 東武는 새로운 醫學의 脈을 이어갈 四象體質醫學을 만든 背景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四象醫學이 이땅에 나온지 100년이 지난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이 醫學의 精確한 趣旨를 알지 못하는 畵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처지에서 이번 제16회 全國 韓醫學 學術大會의 主題發表로 「四象醫學」이 채택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藥에 나타난 四象醫學의 特徵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고 成人病의 治療와 管理에 있어 四象體質醫學의 長點을 考察하고자 한다.

### II. 四象醫學의 特徵

東武四象醫學의 特徵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1. 四象醫學은 四元構造的 本體論에서 시작된 醫學이다.

「反誠箴」에서 東武는 “太極을 心이라 하고 兩儀를 心身이라 하고 四象을 事心身物이라”하여 그의 本體論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易理에서 太極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生八卦하여 吉凶과 모든 物象이 八卦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八卦에서 우주만물의 生成論的 理致와 分化過程을 설명하고 있다.

周易에서 四象의 의미는 八卦로 나누어지게 되는 中間者에 지나지 않지만 東武에게 있어서 四象의 의미는 더이상 분화하지 않는 質體的 概念으로 事心身物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宇宙의 構成的 要素, 發生變化的 要素, 자체調和的 要素, 物象으로의 表象的 要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物象現象은 事心身物로 歸納설명되고 있고 宇宙現象 社會現象 人體生理現象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事心身物의 要約精神으로 설명하고 있다.

宇宙의 四元構造를 天人性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天(事物)과 人(心身)의 構成的 要素에다 事心の 性現象과 身物の 命現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社會現象의 四元構造도 慧覺現象으로 仁義禮智(事)와 忠孝友悌(心)가 있고 資業現象으로 士農工商(身)과 田宅邦國(物)이 있다고 보았다.

人體의 生理적 四元構造도 耳目鼻口(事) 肺脾肝腎(心)의 기능과 頭肩腰腎(身) 頤臆臍腹(物)의 기능으로 나누고 이를 知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간의 體質도 肺大肝小인 太陽人(事)과 肝大肺小인 太陰人(物) 脾大腎小인 少陽人(心) 腎大脾小인 少陰人(身)으로 대응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事心身物의 物象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고 반드시 太極의 心과 兩儀인 心身이 내면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四象인 事心身

物로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는 性과 慾의 兩面性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東武哲學의 本體論이다.

2. 四象醫學은 人間中心 病理醫學이다

既存 證治醫學이 道敎的 배경에서 출발한 五行과 天人相應關係의 病理醫學이라고 한다면 四象醫學은 儒敎的 배경에서 나온 人間中心 病理醫學이다.

東武는 “옛날 醫師들이 단지 飲食物로 인해 脾胃가 상하거나 또는 風寒暑濕의 침범으로 病이되는 줄로만 알았지 愛惡所欲喜怒哀樂의 偏着에서 병이되는 줄은 몰랐다”고 하여 喜怒哀樂이 병의 原因이 됨을 말하였고, 또한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 知人不明에서 나온다”고 하여 인간의 社會생활속에서 나오는 갈등현상과 個體의 內面的 不誠實에서 나오는 갈등현상을 함께 설명하여 이러한 人間中心的 思考에서 발생되는 喜怒哀樂現象에서 病理觀을 찾고 있는 것이다.

“哀怒之氣는 上升하는 기운으로 逆動하게 되면 下焦인 肝腎이 상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하는 기운으로 逆動하게 되면 上焦인 肺脾를 상한다”고 하였고 “太陽人은 哀가 極하면 忿怒激外하고 少陽人이, 怒가 極하면 悲哀動中하고 少陰人이 樂이 極하면 喜好不定하고 太陰人은 喜가 極하면 侈樂無厭하게 된다”고 하여 喜怒哀樂의 失中이 병이 됨을 體質別로 설명하고 있다.

3. 四象醫學은 心身均衡의 治療醫學이다

東武公은 四象醫學의 治療精神을 既存의 藥物과 針灸의 수단으로 모든 병을 治療하려는 고전적 治療醫學에서 精神(心理)的 안정을 치료의 수단으로 새로이 도입하여 心身的 均衡狀態에서 치료정신을 구하고 있다.

精神과 肉體를 동시에 다루어 疾病을 治療할

때는 心身 均衡的 醫學精神속에는 오히려 藥物과 針灸의 治療手段이 性情의 均衡을 잡아주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되고 治心治病을 治療의 根本精神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평생 責心責氣해야하는 心身的 존재로서 存其心 養其性하고 修其身 立其命해서 知行을 닦아 人格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자기體質에 맞는 性情의 均衡을 통한 人格完成과 性情의 升降緩速의 조절을 통한 治病精神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4. 四象醫學은 形象醫學의 辨證體系이다.

內經의 五行的 臟象論의 배경이나 東醫寶鑑의 身形篇에서 “精氣神 三要(氣)가 五臟六腑에 작용하여 顔面에 形氣色澤(形)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하여 人體의 건강상태를 診斷하고 生命의 壽 不壽를 짐작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氣裏形表」의 精神에 입각한 形氣論의 形象醫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四象醫學은 東武의 本體論(太極의 心 兩儀의 心身, 四象의 事心身物)의 精神에 입각하여 形心論의 形象醫學이라 할 수 있다.

즉 形而上學의 現象을 「事心」으로 形而下學의 現象을 「身物」로 나누어 보이지 않는 精神의 現象과 보이는 肉體의 現象을 함께 연결하여 人體의 生命現象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四象醫學의 形象醫學의 背景이다.

既存의 證治醫學을 확일적 「形氣論的」 形象醫學이라 한다면 四象醫學은 四類形的 「形心論的」 形象醫學이라 할 수 있다.

四象人의 形心論의 설명 방법에서 心대신에 性情을 대입하여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하고 怒情이 促急해서 肺大肝小의 臟理가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내면적 특성때문에 의형적으로 “腦顛之氣勢가 盛壯하고 腰圍之立勢가 孤弱한 體形氣像의

特徵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四象人의 體質證(건강한 상태의 生理現象)의 特徵을 形象醫學의 方法을 통하여 辨證體系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四象人의 體質證을 辨證하기 위해서는 形象的 取象方法을 活用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四象人의 건강 상태의 생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完實無病(肉體的)의 조건과 恒心(精神的)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고, 일단 生理현상이 깨어져 病理狀態가 되면 육체적으로 大病의 조건과 정신적으로 性情의 偏急現象을 제시하여 病理的 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고유하게 그 體質에서만 나타나는 肉體의 病理現狀과 精神的 病理現狀을 함께 모아 이를 形證病證으로 요약하여 體質病證의 辨證體系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形證病證의 요약정신은 東武가 지향하는 “家家知醫하고 人人知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四象醫學의 完成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5. 四象醫學은 새로운 體質病證藥理의 治療法을 제시한 醫學이다.

이제까지 證治醫學의 治療藥理는 六經病證이나 五臟病證의 현상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 病證의 寒熱虛實에 대한 補寫精神에서 正氣虛와 邪氣實의 양면조건을 治療藥理로 삼고 있으나, 四象醫學의 病證藥理精神은 人體를 正氣중심에서 보고 동일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體質의 저항력이 邪氣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따라 順證과 逆證으로 나누고 正氣의 升降緩速과 中和調節에서 그 治療精神을 찾고 있다.

즉, 少陰人 表病證에서는 表陽의 升氣가 필요하고 裏病證에서는 裏陰의 降氣가 필요하고, 少陽人 表病證은 表陰의 降氣가 필요하고 裏病證에서는

襄陽의 上升이 필요하다. 太陰人 表病證에서는 呼散之氣를 도와 肺陽上升을 도와주고 裏病證에서는 清熱通裏시켜 下氣시키고, 太陽人 表病證은 下降之氣를 도와 下虛上實을 막아주고 裏病證은 吸聚之氣를 도와 呼散之氣를 억제하고 補肝生陰시킨다.

이와같이 邪氣實 正氣虛에 따른 補寫概念이 아니라 人體를 正氣중심으로 順氣調氣하는 차원에서 元氣의 升降緩速을 잡아주는 것이 四象醫學의 治療精神인 것이다.

6. 四象醫學은 體質管理를 이용한 養生醫學이며 生活속에서 찾는 豫防醫學이다.

東武는 四象醫學을 治療醫學의 비중보다 人格完成(修養)및 養生醫學에 비중을 두고 이를 生活속에서 구하고 있다.

“廣濟說”에서 “幼年期에 병이 나면 자애로운 어머니가 보호해야 하고, 少年기에 병이 나면 지혜로운 아버지나 유능한 형이 보호해야 하며, 壯年期에 병이 나면 현명한 아우나 선량한 친우가 도와주어야 하고, 老年기에 병이 나면 孝子나 孝孫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만약 시골사람이 聞見이 없거나 독서하는 사람이 警戒함이 없으면 夭折의 禍를 당한다”고 하여 年齡的 성장에 따른 對人關係의 不和나 생활환경의 不調和 要因이 사람의 건강과 壽夭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나아가 嬌奢 懶怠 偏急 貪慾등의 邪心 怠行은 목숨을 직접 위협하는 要因도 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酒色財權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마치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아 一身의 壽夭와 一家의 禍福이 모두 여기에 관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太陽人은 懶怠와 酒食을 주의하고, 少陽人은 嬌奢와 侈色을 멀리하고 太陰人은 貪慾과 財物을 청렴히하고, 少陰人은 偏急과 權勢를 경계하라고 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社會生活의 攝生法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太陰人은 察於外而恒寧靜怯心하고 少陽人은 察於內而恒寧靜懼心하고 太陽人은 退一步而恒寧靜急迫之心하고 少陰人은 進一步而恒寧靜不安定之心해야 된다”고 하였고 이어서 “太陽人은 恒戒怒心哀心하고 少陽人은 恒戒哀心怒心하고 太陰人은 恒戒樂心喜心하고 少陰人은 恒戒喜心樂心한다”고 하여 性情의 體質管理를 통한 心身攝生法을 제시하고 있다.

東武는 마지막으로 생활속에서 四象人의 體質 飲食攝生法을 제시하고 있어, 四象醫學은 평소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養生醫學이고 생활속에서 찾는 豫防醫學임을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好賢樂善을 좋아하고 妬賢嫉能을 싫어하는” 倫理的 醫學임을 강조하고 있다.

### III. 成人病

한편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成人病이란 更年期 전후의 慢性的이고 痼疾의인 難治病을 통칭하여 말하고 있다.

成人病이란 용어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그말의 유래와 정의등이 불명하다. 기다마도(北窓)(1991)에 의하면 成人病은 일본후생성이 처음 사용한 新造語이고 후생성 기록상 1956년 3월에 처음으로 成人病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成人病은 病理學的으로 규정되는 疾病보다 保健政策上的 개념으로 만들어진 疾病이며 이중에 속하는 疾病은 다양하고 대체로 사망율이 높거나 기능장애가 심하여 社會활동에 지장을 주는 慢性退行性疾患들이다.

成人病의 內容과 範疇는 일정치않으나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진 疾病群으로 요약된다.

1) 成人階層(주로 40세이후)에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非傳染性 退行性疾患인 慢性疾病群이며 成人의 중요사망 혹은 활동장애의 원인이 된다.

2) 疾病의 직접적원인은 불명한 것이 많고 발병의 위험인자가 多因性이고 개인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이 많으며 대부분은 원인 치료방법이 없고 위험인자의 제거로 豫防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많다.

3) 만성, 대사성, 퇴행성질환이 대부분이고 집단 발생형태가 아니며 個人的 散發的인 疾病이다

4) 30대의 成人초기부터 疾病素因이 형성되고 점차 疾病으로 형성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疾病管理가 장기간을 요한다.

5) 成人病이 장기화되면 노인병으로 이행한다. 이러한 特徵을 지닌 중요 成人病으로는 악성종양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졸중 당뇨병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및 퇴행성 관절염등이 있다.

成人病은 노화현상이 발생된 생체에 각종질환의 원인및 유인(위험인자)에 의하여 疾病이 발생된다. 成人病的 원인은 불명한 것이 많으며 다만 역학적으로 그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으며 주요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즉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고노산혈증, 비만, 흡연, 음주, 고염식, 설탕과다섭취, 단백질섭취부족, 과로, 정신적스트레스, 운동부족, 불규칙적생활, 성격, 피임약사용, 발암성물질과의 접촉, 간염에 폭로등이다.

따라서 成人病을 管理하기 위해서는 40대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활동의욕 감퇴, 피로, 권태, 불면, 두통, 현기증, 변비, 초조, 불안 등의 半健康狀態가 나타나면 成人病 발생여부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하고 일상생활습생에 주의해야 한다.

즉 충분한 肉體的 精神的 휴식이 필요하며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에 유의하여 여가선용등으로 정신긴장을 완화하며 적극적인 운동과 비만예방

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간염예방주사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증등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저염식 저설탕 고단백 섬유소 칼슘섭취등의 식이요법과 금연 금주와 더불어 규칙적인 생활이 요구된다.

成人病은 대부분이 慢性病이며 치유가 쉽지 않으므로 평생동안 병의 管理와 재발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成人病은 豫防醫學의 次元이 최선이라 하겠다.

#### IV. 總括 및 結語

앞에서 언급한 四象醫學의 特徵을 요약한다면

1. 四象醫學은 인류의 五六千年間 醫學경험을 바탕으로하고 기존의 證治醫學의 醫學精神을 수용여과해서 새로이 脈을 이어가는 발전적 개념의 醫學이다.

2. 四元構造的 本體論에서 시작된 醫學이다.

3. 人間中心的 病理醫學이다.

4. 心身均衡의 治療醫學이다.

5. 形象醫學的 辨證體系의 體質醫學이다.

6. 體質病證藥理의 治療法을 제시한 醫學이다.

7. 體質管理를 이용한 養生醫學이며 生活속에서 찾는 豫防醫學이라 하겠다.

이러한 四象醫學의 학문적 특성과 현대醫學에서 주장하는 成人病에 대한 管理방법에서 일치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四象醫學이 건전한 生活속에서 人格의 수양과 性情의 조화를 통한 養生法 곧 豫防醫學의 管理次元을 강조하고 있는데, 成人病 역시 慢性病이며 난치병으로 治療보다는 豫防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일치점이 있다. 四象人의 體質에 따른 攝生法(社會生活의 攝生法, 心身攝生法, 體質飲食攝

生法등)을 활용하면 成人病을 豫防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 性情의 갈등에서 모든 病理要因을 찾고 있으며 이를 心身均衡의 측면에서 治心治病의 治療精神을 추구하고 있는데, 成人病의 원인으로 精神의 스트레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管理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肉體의 精神의 휴식과 스트레스로 인한 精神긴장을 緩和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있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性情調節을 통한 治療法이 成人病의 治療法으로 적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四象醫學에서는 같은 疾病이라도 體質에 따른 差等的 治療法을 제시하여 體質자체의 취약점을 해결함으로써 疾病을 治療할 수 있다는 體質管理를 통한 治療精神을 추구하고 있으며, 成人病 역시 體質 및 遺傳的要因이 작용한다고 보아 體質改善의 次元에서 豫防과 治療法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體質管理를 통한 體質改善이 成人病의 體質改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나온 四象醫學의 「豫防醫學의 管理次元」 「精神神經 管理次元」 「體質管理 治療次元」이 바로 成人病 管理에 있어 유리한 점이 된다고 하겠다.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환경과 문명속에서 알게 모르게 成人病에 노출되어 있으며 점차 이러한 경향성은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四象醫學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한국 韓醫學의 國籍醫學 복원차원에서 四象醫學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하며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1.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2. 이제마 : 격치고
3. 서순규 : 成人病. 노인병학, 서울 고려醫學 1992